

<나의 삶 나의 하나님>

끝까지 품어준 사랑

어느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 누구보다도 시어머니를 존경 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남편 되는 목사님도 당신의 어머니를 무척 존경하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으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게끔 만든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결혼을 하면서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어머니는 갓 시집 온 며느리에게 살림을 통째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셨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봉급을 받아 오면, 봉투 짜 다 며느리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생각이 깊으신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해 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모님은 시어머니의 깊은 생각을 미처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월급 봉투를 통째 넘겨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바닥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시아버지께서 월급을 받아 오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그 월급 봉투를 며느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좀 낭비한다 싶었던 부분은, 음식 분야였습니다. 서울 태생인 이 사모님이, 비린내가 나는 생선은 먹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값싼 콩치 종류는 쳐다보지도 않고 값비싼 갈치 오징어 종류만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월급 액수로써는, 겁 없는 이 며느리의 계산을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내 아무 말씀도 없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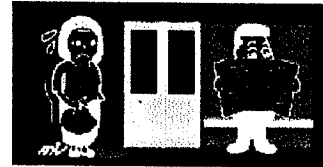
그 후 세월은 흘러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모님은 목사님을 따라 어느 시골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골 교회의 사례비란 뻥한 것, 이 사모님의 살림 솜씨는 아무래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식탁에 놓인 음식을 보신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콩치가 다 놓였구나! 어미는 콩치를 싫어하지 않니?" 이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콩치도 우리에게는 과분한 걸요, 뭐"

시어머니는 다시금 조용히 말씀을 꺼냈습니다. "네가 처음 시집와서 살림을 맡았을 때, 나는 심히 불안했었다. 네가 계속 살림을 맡다가는 거덜날 것만 같더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고 아무 말 없이 이날까지 참고 기다렸었다. " 이 말을 들은 그 사모님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 거렸습니다. 동시에, '이처럼 훌륭한 시어머니를 모신 내가 얼마나 행복한 며느리인가?'하고,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 | |
|--|--|--|
|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 '2001년 교회생활:QT하는 갈보리교인'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
| 제 3권 47호 |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 2001년12월 9일 |
| ☎520-9464/021-292-1639.☒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 | |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의원이었을 때 한번은 퇴근시간에 전차를 탔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분이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올라왔으나 아무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할머니는 그 짐을 전차 맨 뒷자리까지 끌고 가 복도에 서 있었는데 전차가 흔들려서 제대로 서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일어나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서있던 자리 앞에 한 사람이 앉아있었는데 할머니를 보고는 일어나는 대신 읽고 있던 신문을 더 바싹 얼굴에 대고 못 본 척했습니다. 매킨리는 일어나서 그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후에 매킨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마침 대사 후보 명단이 올라왔는데 검토해보니 옛날 전차안에서 신문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그 사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킨리 대통령은 그를 대사 임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행한 예의없는 작은 행동 때문에 그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때 전차 안에서 매킨리가 자기의 무례함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10:1)

-국민일보중에서-

주 일 에 네

| | | |
|------------------------------------|--|--------|
| 영 광 송 Gloria | "Calvary" 1.3절:다같이 | 다 같이 |
|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 | |
| 용서의 선언 Proclaim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 인 도 자 |
| *찬 송 Hymn | 31장 | 다 같이 |
|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 38(사 42) | |
|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 사 도 신 경 | |
|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 | |
| 찬 송 Hymn | 122장 | 다 같이 |
| 기 도 Prayer | | 최재학 집사 |
|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 누가복음3:1-6(신91) | 인 도 자 |
| 부부성가대 Couple's Choir | | 부부성가대 |
| 설 교 Sermon | "대강절(2) 주의 길을 예비" | 김성국 목사 |
| 찬 송 Hymn | '믿음 더욱 굳세라' | 다 같이 |
| *헌 금 기도 Offeratory Prayer | | 인 도 자 |
| *응 답 송 Response Song | '좋은신 하나님' | 다 같이 |
|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 | 인 도 자 |
| *축 도 Benediction | | 김성국 목사 |

<12월 예배위원>

| 일자 | 주일기도 | 수요기도 | 헌금위원 | Tea Time | 주일 안내 |
|-----|------|------|------|----------|---------|
| 2일 | 최윤희 | 인치혁 | 김순자 | 사카시다.윤형권 | 최재학.정희자 |
| 9일 | 최재학 | 윤한나 | 김영길 | 김성국.김시욱 | 박일영.윤형권 |
| 16일 | 김교섭 | 윤형권 | 김정미 | 이재영.이종운 | 정덕수.김순자 |
| 23일 | 김순자 | 임혜자 | 김종건 | 김교섭.최윤희 | 이재영.인치혁 |
| 30일 | 김영길 | 정덕수 | 노은숙 | 박상옥.양경배 | 김종건.박상옥 |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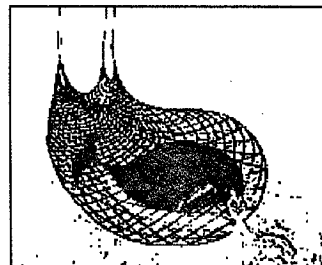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12:00 | 수요예배 7:30 pm | 금요새벽기도: 6:00 | 아동.학생.청년부: 주일 1시

교 회 소 식

- 오늘은 대강절 둘째주일: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예수님의 탄생....
-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7기) 마지막 모임: 월요일(10일) 7:30분 Hall
- 2구역 구역예배: 토요일(15일) 낮 12시. 김영길 집사 자택
☎443-0277 ☐ 8 Tawavale Cres. Sunnynook
- 어제는 교사들의 수고와 도와주신 교우들의 어우러짐으로 학생부의 즐거운 야외(?) 모임이 되었습니다. 넓직한 Hall이 있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 24일 크리스마스 축하의 밤 행사(1가족 초청)
*이웃에게 예수님이 오신 기쁜 소식을 알리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초청대상: 평소 전도대상자로 기도하시던 1)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
2)교회출석을 하지 않는 이웃 그리고 평소 신세졌던 kiwi 이웃..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 타교회 성도를 초청하시면 안됩니다.
- 토요일급식봉사: 크리스마스행사로 조금 바쁜 주간이지만 배고픈 이웃을 위한 선행은 할 수 없습니다.
*일시: 다음주 토요일(22일) 아침 10시 - 오후 1:30
*봉사: 이번은 '아름다운 40대' 남편과 백년해로중인 여성교우 4-5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겠습니다. <담당>김정미 집사
- Hall 사정으로 오늘은 예배후 Tea Time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갈보리비빔밥'을 나누는 식사친교주일이기에 아쉬움이 더 합니다.
- 12월 교회력

| | 교 회 력 | 모임 및 행사 |
|--------|----------------|---|
| 9일 | | 기초성경공부(10일) |
| 16일 | | 토요일급식봉사(22일) |
| 23일 | 성탄주일 | "Christmas in the Family" 성탄축하의 밤(24일) |
| 25일(화) | 성탄절 | 성탄예배 |
| 30일 | 송년주일 이삭줍기봉헌 | 송구영신예배(31일) |



작은 물고기로 살아온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하게 될 날이 있습니다.